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미래의 행복을 바란다면

현재의 시련을 받아들여라.

불성은 바로 그대 곁에 있습니다.

이런 생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존재가 되어 있을지 누가 알까요? 현생에서 여러분은 배고픔, 목마름, 더위, 추위 등을 참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생에 직면하게 될 고통에 비한다면 이것은 작은 어려움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다르마를 수행함으로써 불변하는 해탈의 지복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만약 미래 생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현재 내 삶의 형태와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면 그리고 세속적인 목적에만 집착한다면 당신은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고 인간 생의 소중한 잠재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깨달음을 위해 충실하게 헌신한다면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에 그 근원적인 청정함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는 자산을 투자해 재산을 늘리게 됐는데, 어떤 구두쇠는 꼭꼭 숨겨 놓았기에 아무 이유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불성은 당신 안에 있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를 자금으로 만들지, 그냥 썩힐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새 수장 연임·교체 속 종단들 변화 모색

2013년 불교 종단 결산

올해의 불교 종단들은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한국 불교 장자 종단인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들의 수장이 연임되거나 교체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종단들은 안정을 기조로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갈등과 반목... '불안한 출발'

올해 불교계의 가장 큰 이슈는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누가 당선될 것인가'였다. 사실상 불교계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세간과 출세간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결국 조계종 선거는 총 5명의 스님이 출마해 추대가 아닌 경선 체제로 진행됐지만, 사실상 기호 1번 자승 스님과 기호 2번 보선 스님의 양자 대결이었다. 10월 10일 열린 선거 결과는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자승 스님의 압승이었다.

자승 스님은 당선 소감문을 통해 "항상 초심의 자세로 스스로를 탐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자는 소임자로서 헌신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 4년의 모습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국민과 우리 사회 나아가 세계 속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뿌리내리는 실천과 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 양 측은 상호 승적 의혹까지 제기하며 이전투구를 벌였다. 공명선거로 이끌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략에 휩쓸려 제 역할을 못했다. 후보 간 정책 토론회는 논의만 있을 뿐 열리지 못했다.

갈등이 충분히 봉합되지 못하다보니 제34대 집행부는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전 오사 주지 장주 스님의 종단 주요 스님들의 도박 관련 폭로와 윤광 사미(적광 스님)의 폭행 건은 사실 여부를 떠나 자승 스님과 제34대 집행부에게 계속 신경 쓰이는

장애물이다.

초기 직영 사찰 인선을 놓고도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이 봉은사 인사에 관여했다"는 불교광장 회장 지홍 스님의 비판이 있어 일대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 같은 후유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조계종 제34대 집행부의 과제다.

태고종 등 변화 모색 및 분사 시작

가장 먼저 종단 수장이 교체된 곳은 진각종이다. 진각종 총의회는 4월 1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29대 총무원장에 명륜심 인당 주교 회정 정사를 선출했다. 27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바가 있는 회정 정사는 종단 주요 현안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일꾼으

주요 불교 종단 수장 연임·교체

조계종 대립 속 당선... 후유증 우려

태고종 변화위한 내부 정리 추진

천태종 선원 분사·총화종 회관 완공

로 정평이 나 있다.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에는 개혁적 인물로 평가받는 전 중앙총회의장 도산 스님이 당선됐다. 7월 18일 열린 선거에서 도산 스님은 전체 유권자 총 146명 중 68표를 획득해 총무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도산 스님은 "8대 핵심기조와 18대 공약을 실천해 제2의 창종에 버금가는 재도약의 초석을 놓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같이 종단 부채 해결과 제2의 창종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도산 스님의 집권 이후 태고종은 자체 쇄신을 위한 산림과 부채 해결 결정회 등을 개최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불교 총지종의 총무행정을 이끌고갈 제17대 총무원장에 법등 정사가 선출됐다. 총지종 중앙총회는 제114회 총회를 4월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자승 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범어 스님에 당선증을 교부 받고 있다.



제25대 태고종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도산 스님(사진 오른쪽)이 당선증을 교부받고 있다.



5월 21일 열린 진각종 제29대 총무원장 회정 정사 취임법회 모습.

26일 서울 여삼동 총무원서 개최하고 법등 정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천태종은 종단 차원의 대규모 회관 결립 분사를 시작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도정)은 4월 20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심국제선원 건립 기공식'을 봉행했다. 일심국제선원은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825㎡(2,370평)에 국제선원 1동(33,544평), 문화체험실 2동, 한마음문(천왕문), 공양실 및 강당 등 5개동으로 구성된다.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총본사 추진사의 복지문화교육전승관 분사를 마무리하고 4월 23일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복지문화교육전승관은 총건평 2300평 위에 2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당을 비롯해 유치원, 요양시설, 외국인 쉼터 등이 조성돼 있다.

각 종단 내년 과제는?

조계종은 내년 중앙총회의원과 분사 주지 선거 일정이 빽빽하다. 내년 주지 교체를 맞은 분사는 2교구 용주사와 9교구 동화사, 11교구 불국사, 13교구 쌍계사, 16교구 고운사다. 여기에 내년 2월, 8월 중앙총회의원 보궐선거와 10월 16일에는 제16대 중앙총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종단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계종이 올해 제정·공포한 법인법에 따라 관련 법인들은 내년 6월까지 종단법인 등록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선학원에 이어 대각회까지 법인법 반대 대열에 동참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종단 쇄신 위한 첫 '산림' 연다

12월 27~28일 선암사에서...회향식 때 청구 발표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스님)이 창종 이래 처음으로 종단의 중진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종단 쇄신과 승풍 진작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2월 27일~28일까지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열리는 '태고산림 법회'가 그것이다. 27일 오후 7시에 입재식을 갖고, 28일 오전 10시에 회향한다. 특히 회향식에서는 승풍 진작을 위한 청구가 발표돼 눈길을 끌

고 있다. 이번 태고산림 법회에는 종정 혜초 스님을 증명으로 총무원 집행부, 중앙총회의원, 호법원, 전국시도교구총무원, 전국비구니회, 전국전법사교임회 임원진 등 종단 주요 간부 스님들이 대거 참석한다. '태고산림'은 전체 태고종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한마음으로 종단을 변화 쇄신시키며 한국불교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는 원력을 대내외로 선포하는 뜻 깊은

법석(法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태고산림 법회는 태고종이 새해를 앞두고 그동안의 구태를 벗고 승가본연의 자세를 확립해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로 마련됐다"며 "한자리에서 종단 발전과 쇄신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 결과인 청구를 지켜가며 내실을 쌓는다면 태고종이 정통종단이자 수행·교화 종단으로서의 자리를 한층 더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조계종 의례위

한글(천수경) 공포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의례위원회(위원장 인묵)는 12월 19일 한글의례문 천수경을 공포했다.

한글천수경이 공포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2011년부터 한글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10월 1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한글천수경 초본이 공개됐다. 이후 지난 6월 열린 194회 중앙총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이월됐고, 지난 11월 196회 정기총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됐다. 신종일 기자

제3회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및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2014. 1. 5.(일) 오후 2시 해운대 벅스코 3층 컨벤션홀

제1부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제2부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 대 상 : 조계종 사찰 신도로 3인 1조 구성(청소년 1인 필히 포함)
- 참 가 비 : 팀당 3만원(포교 기금에 사용)
- 퀴즈내용 : 예상문제 배부 80%, 일반상식 20%
예상문제는 현재 다음 카페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cafe.daum.net/bsbuddhism)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상 품 : 상금 1등 : 1팀(100만원)
2등 : 2팀(각 50만원)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증명스님 휘호 및 상품
- 그 외 참가팀들에게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전화 또는 팩스 전송
예상문제 및 신청서는 다음 카페 'cafe.daum.net/bsbuddhism'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bsbuddha@daum.net 전화 051)501-7554 팩스 051)501-9333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